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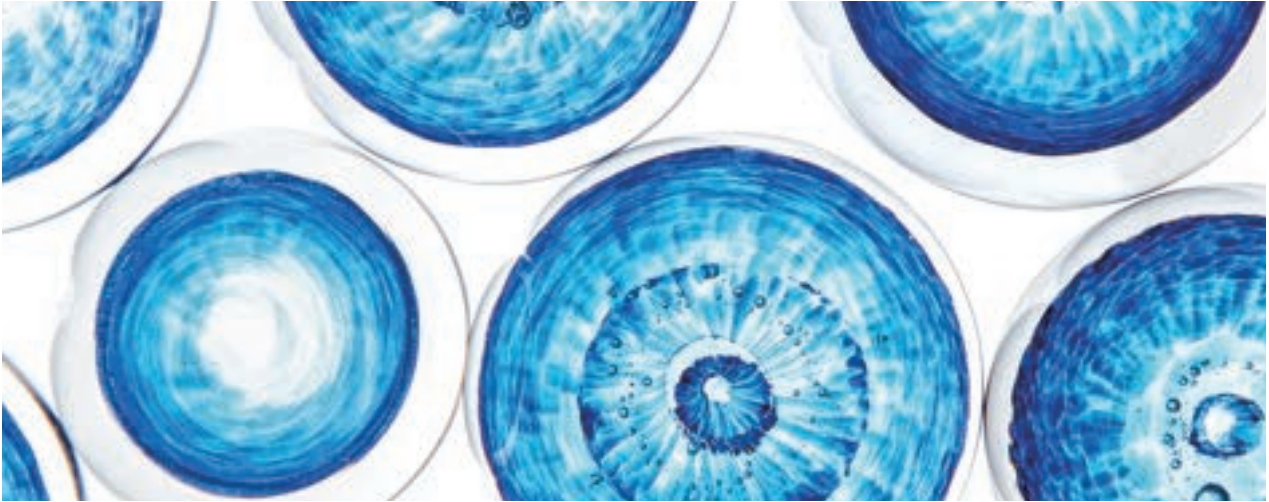
CARIN

C o n t e m p o r a r y A R T I N s t i t u t e

갤러리 메르씨엘 비스는 2020년 4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2013년 오픈하여 국내외 다양한 작가와 작품을 소개해 온 갤러리 메르씨엘 비스는 bis를 떼어 내고 보다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전개해 나아가고자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Contemporary ART INstitute의 의미를 가진 현대미술연구소 carin카린은 일본 법인 cal.net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로 나아가는 문화 예술의 전도자로 역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코리안 아트 파워를 세계에 널리 알리며, 세상의 재미난 요소를 지역에 소개하는 다양한 취임을 기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린은 갤러리의 경계를 넘어, 산업과 예술의 멋진 취임을 지원하고 기업과 아티스트를 연결하며 세계에 흐르는 예술의 감각을 고객에 전달하는 사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문을 여는 전시는 예술의 지점에서 표현되는 우리의 세계를 보여 주는 '녹색 물결 Green River'입니다. 이정윤 이재경 두 작가는 팬데믹 전염병 시대에 부르는 치유의 노래를 우리의 언어로 펼쳐 보입니다. 그린 리버와 함께 시작하는 카린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CAR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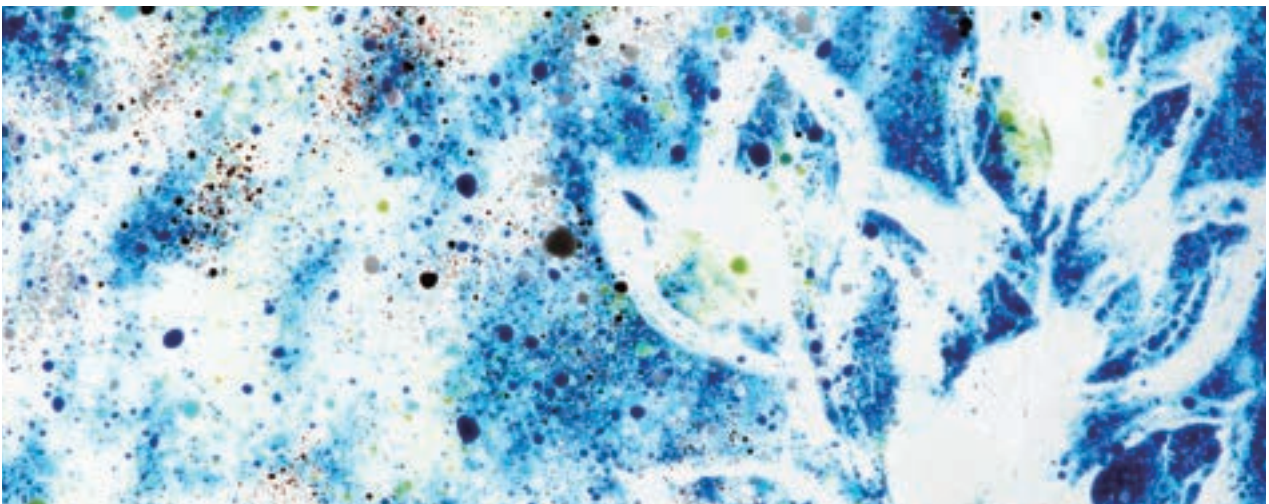
GREEN RIVER

이재경 이정윤

05.07^{THU} — 06.28^{SUN}

CARIN

C o n t e m p o r a r y A R T I N s t i t u t e



1. 전시개요

전시제목 | Green River - 이재경, 이정윤

전시기간 | 2020.5.7 (목) ~ 6.28 (일)

전시장소 | 카린 (구. 갤러리 메르씨엘비스)

관람시간 | 11:00AM ~ 07:00PM

문의전화 | 051.747.9305~6

2. 전시내용

Green River 그린리버

'Green'은 대표적인 자연의 색으로 평화로움, 안정을 의미하며 정원, 낙원, 봄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많은 문화권에서 젊음이나 설익음 등의 아직 원숙 되지 않은 싱그러운 그 무엇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전시 제목인 'Green River'는 위에서 언급한 문화적으로 동의된 초록이 내포하는 의미를 더 확장하여 그 초록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시간과 공간을, 가치와 가치를 연결하고 소통한다. 그리하여 전시 'Green River'에서는 예술가의 삶이 유리(액체)가 되어 녹아 흐르는 시이자 초록이 흐르는 강으로 공간(전시)을 구성하여 관람객들에게 제시한다.

설치미술가 이정윤과 유리예술가 이재경, 이들의 2인전이 5월부터 '카린(구.메르씨엘비스)'에서 두 달간 열린다. 두 작가는 본 전시에서 작업의 재료로 '유리'를 사용했다. 같은 물질을 다른 예술 언어로 번역하는 방식, 세계를 들여다보는 프레임으로서 재료의 사용방식, 예술과 기술, 노동과 시간, 예술 또는 예술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생각들이 본 전시의 관람을 통해 담론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3. 작업노트

높고 낮은 강도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재해로 인해 동반되는 상실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 '예술'이라는 언어가 가장 무용하게 느껴짐과 동시에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거짓말같이 세계를 지배해버린 바이러스 앞에서 예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로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기대어 살던 시대가 끝이 나고, 어쩌면 새로운 역사가 쓰일 것이라는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다. 일상이라고 믿던 것들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과거'가 되면서 어쩌면 세상은 토머스프리트먼이 말한 진정 '평평한 세계'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죽음, 사라짐의 공포 앞에 누가 더 낮고, 모자람이 없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또 사라지게 된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우리는 살아지는 시간을 확인하고, 또 살아갈 날을 꿈꾼다.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 앞에서 예술가라고 다를 것이 없었다. 당장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예술가이기에 조금 다른 점이라면 시끄러운 고독 속에서도 어떤 언어로 내가 말할 것을 번역할지 생각하는데,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순간은 찬란했던, 그러나 사라지는 것들을 기억하고, 연약하기 이를 데 없지만 다시 깨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보듬으며 살아갈 날들을 꿈꾸는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작업을 번역할 재료로 '유리'를 선택했다.

'유리'라는 재료는 과냉각된 액체로서 온도에 예민하고, 적정 온도를 만나면 물처럼 흐르다가, 금세 식어 고체덩어리가 된다. 그 투명함은 영원하지만, 동시에 연약하다. 재료의 물리적인 성격은 내게 다채로운 프레임임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렌즈'로 다가왔다. '코끼리', '넥타이', '하이힐', '풍선' 등의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설치작가에서 이제 무엇이든 변할 수 있는 '액체', 순도를 잃지 않는 무언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나타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예술을 꿈꿀 수 있게 하는 '재료'로서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유리에 대한 동경과 함께 2019년 봄, 부산에서 '이재경 작가'와 블로잉 작업실을 오픈했다. 1200도의 온도를 만나면 액체가 되어버리는 유리를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아가며 형을 만드는 블로잉 작업을 20여 년간 해 온 이재경 작가에게 '유리'의 물성을 배우면서, 기술을 넘어 '유리'가 은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철학적 의미들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번 전시에서 나(이정윤)는 자투리 유리판을 갈아내어 가루로 만들고, 아름답게 꽃꽂이 되어있다 시들어버린 용도가 다한 꽃들 위에 그 가루를 뿌려 가마에 구워내는 퓨징 기법을 사용한 작업들을 선보인다. 연금술사가 마법의 가루를 뿌려 쓸모없는 것에서 빛나는 '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의식'과 같았다. 고민이 집적된 오브제인 동시에, 한편에서는 렌즈가 되어 의미 있는 그림자들을 만들어내는 이번 작업 과정을 통해 과거의 '나'.'현재'의 나로부터 몇 걸음 걸어 나와 다른 시각으로 삶을 통찰하고,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양한 프레임으로 공간과 시간의 축을 재구성해보았다.

일상이라 불리우던 것들을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 보기. 그것이 지금 예술이,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이전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라지는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시 바라보고, 살아갈 날을 다시 노래할 때다. 사라지는 것들을 위한 노래(레퀴엠), 그리고 살아지는 노래(The Songs for leaveing and living)를 부를 때다.



<이정윤 작가 작업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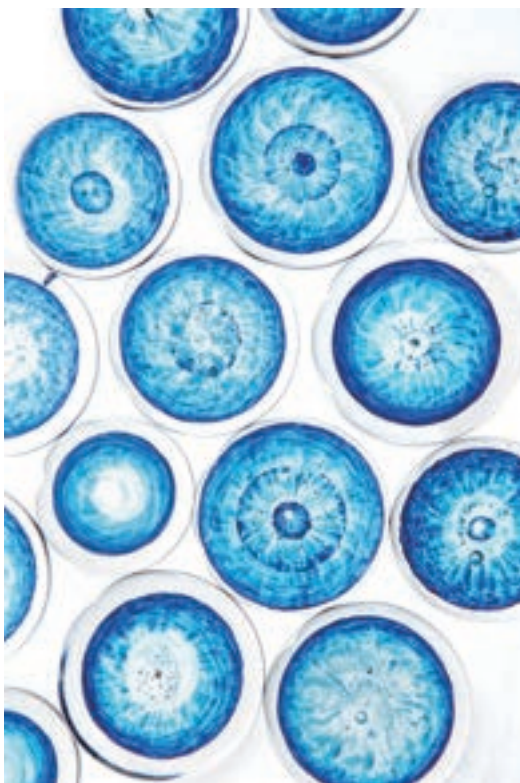
카린의 지하공간을 채운 이정윤 작가의 작품과 조명

이정윤, Code Green: 사라지는 노래, 살아가는 노래

공간내 가변설치, ELP light

조명감독 : 육명찬, 김태형

이재경은 그동안의 작업에서 일상의 소소한 소리들, 음악 선율들을 기억하고 이를 수집하여 색으로 녹여내는 유리 블로잉 작업을 오랜 시간 해왔다. 본 전시에서는 '시간을 녹이다: Melting Time'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풀어낸다. 영롱한 빛의 유리 구슬들, 흘러 녹아내리는 파랑을 품은 유리잔, 그리고 두 가지 색의 유리를 뜨거운 상태에서 붙여 붙어내는 인칼몽 기법을 사용한 오브제들에서는 유리 블로잉 테크닉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수십 년간의 작가의 노력과 땀이 만들어낸 철저하고 완벽에 가까워진 '균형감'과 아름다운 형, 색을 볼 수 있다. 물리적으로 쌓인 시간, 그리고 그것이 녹아내리는 이재경 특유의 작품에서의 완성도는 예술가가 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지표이다. '유리'라는 재료가 어떤 익스트림한 스포츠보다 짜릿하다는 이재경 작가의 작품에서 절묘하게 컨트롤 되고 있는 '시간'을 경험해볼 수 있길 바란다



이재경, Melting time: 시간을 녹이다, 유리블로잉, 2020

이정윤 Lee Jung Yoon



학력

- 2014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박사 졸업
- 2007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석사 졸업(우등 졸업)
- 2004 이화여자대학교 미술학부 학사 졸업
- 2015-2018.6. 동아대학교 미술학과 조교수 역임

개인전

- 2018 《여행하는 코끼리, 꿈꾸는 선인장》오사카한국문화원, 일본
 꿈꾸는 선인장, 세종문화회관기획, 상상톡톡미술관, 서울
 《여행하는 선인장》대명 소노펠리체, 강원
 《여행하는 코끼리》KT&G 상상마당 대치 아트큐브, 서울
- 2017 《이정윤 개인전-동네미술관 한바퀴》헬로우 뮤지움, 서울
 《가로수길 핑크힐 코끼리-힐링 힐링》필터스페이스인서울, 서울
 Art Brut Artist프로그램《Dreaming VERSI-Song of Odd Moons》벚이미술관, 경기
- 2016 《일상의 서커스-지금, 여기 근심을 풀다》맥화랑, 부산
- 2015 《일상의 서커스-통로》석당미술관, 부산
- 2014 《포터블 뮤지움:sewing your time》부산대학교 아트센터, 부산
 《Ready_to_go:sewing your time》서울시 마을예술 창작소 마을미술관 닷라인TV, 서울
- 2013 《Re:round trip 2013: elpha's》가일미술관, 경기도
- 2012 《라운드 트립 프로젝트》맥화랑, 부산
 《아임 플라잉 나우33》아뜰리에터닝, 서울
 《경계에 서서》갤러리 온, 서울
- 2011 《A TRUNK》공아트스페이스, 서울
- 2009 《Sad Elephant》맥화랑, 부산
- 2008 《Hi! Heels Project》공화랑, 서울
- 2006 석사학위 청구전《Hi! Heels Project》프랫 스투벤, 뉴욕, 미국

단체전

- 2019 <<다다 팩토리>>,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 개관전, 서울
- 2019 <<Happy Lab>>, 종량아트센터, 서울
- 2019 <<우리가족의 행복한 시간>>, 어울림누리미술관, 경기
- 2019 <<Post Human>>,클레이 아크미술관, 김해
- 2018 《Round trip from JEJU》갤러리1125, 켄싱턴 제주호텔, 제주
- 2017 《함께해요, 에브리데이 아트》대구예술발전소, 대구
《아트프로젝트 울산》중구 문화의 거리, 울산
- 2016 《해와 달의 서커스》부산시립미술관, 부산
《Traveling Trunk-여행하는 코끼리》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김해공항, 부산
서울시 주관 세계 책의 날 공공미술프로젝트 광화문, 서울
《해우소》스트리트뮤지엄 사변삼각미술관, 서울
- 2015 《환상의 섬-네버랜드에서 놀자》현대예술관, 울산
- 2014 《어린이 꿈틀》경기도미술관, 경기
《양평의 봄[협력+상생]》양평군립미술관, 경기
《첫인상:한국 현대 조각전》호주 한국문화원, 시드니, 호주
《부산아트쇼》백스코, 부산
- 2013 《리조트로 잠입한 예술》대명리조트, 거제
《북극곰 남극에 가다》예술의 전당 V갤러리, 서울
《거북이 걸음》국회의사당, 서울
《기빙백 아트전》콘래드호텔, 갤러리 온, 서울
- 2012 《아시아 탐 갤러리 호텔아트페어》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홍콩
《꿈의 공간을 찾아서》공평아트센터, 서울
《We are animalier》리솜리조트, 아틀리에터닝, 덕천, 서울
《미술관 옆 동물원》롯데갤러리, 부산
《레고레타-그의 공간을 품다》카사 델 아구아, 제주
《Our... My own dream》서울여성프라자 스페이스봄, 서울
《새로운 변형》성북구립미술관, 서울
《창원아시아미술제-현대미술전》성산아트홀, 창원
《춘몽》영화의 전당, 부산
- 2011 《Any art at Paradise》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아시아 탐 갤러리 호텔아트페어》하얏트호텔, 서울
《스코프 아트페어》Pier 40, 뉴욕, 미국
《부산비엔날레 2011 바다미술제》부산
《한국현대조각초대전》춘천 MBC, 춘천
《크라운 해태 Summer Festival 과자의 꿈》송림공원, 부산
- 2010 《사사로운 일상》갤러리 ON, 서울
《중앙대학교 미술학과 교강사전》DMC 갤러리, 서울
《10만원대 행복한 그림》맥화랑, 부산
- 2009 《Postcard from the Edge》메트로 픽처 갤러리, 뉴욕, 미국
《신라대학교 교강사전》시청갤러리, 부산
- 2008 《창원아시아미술제》성산아트홀, 창원
- 2007 《인체의 새로운 해석》캐나다 영사관 갤러리, 토론토, 캐나다
《뉴욕, 캐나다 작가연합전》레녹스 갤러리, 토론토, 캐나다
《BAG 소품공모 당선작전》브룩클린 아티스트 집, 뉴욕, 미국
《제21회 국제 심사위원회전》NJ 비주얼 아트센터, 뉴저지, 미국
《Perceptions》Pochron studio, 뉴욕, 미국
- 2005 《Progressive 3인전》Paula Barr Chelsea, 뉴욕, 미국
- 2005 《Underneath 맥클레인 웰즈 갤러리 선정작가전》맥클레인 웰즈, 뉴욕, 미국
외 다수

이재경 Lee Jae Kyung



학력

2005-2011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금속조형디자인과 박사수료
 2000-2003 일본타마미술대학교 미술연구과(유리전공) 연구생 및 대학원 졸업

개인전 & 단체전

- 2020 Green River : 이재경, 이정윤 (갤러리 카린)
- 2019 이재경 개인전 (맥화랑)
- 2017 한국 뉴스타아트전 (일본 한큐 우메다 본점)
 이재경 개인전 '유리 가게' (롯데 갤러리)
 대전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
- 2016 현대 유리조형의 오늘 (석당 미술관)
 K핸드메이드페어 오매관 특별전 이재경 유리가게전 (코엑스)
 유월에 유리전 (오매 갤러리)
 서울오픈아트페어2016 (코엑스)
- 2015 A Lucid Dream : Glass Works from Korea and Japan
 공예트렌드페어 주제관 초청작가
 공예트렌드페어 산업관 LALUM CRAFT
 Lee Jae Kyung전(일본 야마키 갤러리)
 중국 경덕진 국제 도자 박람회
 현대 유리의 미 (일본 한큐 백화점)
 Glassware on the Table(이도핸즈)
 MEET THE HOT GLASS BLOWING
- 2014 'Meet The Hot Glass'
 공예트랜드 페어
 유리가 있는 풍경
 아울전

- 2013 길벗전
제40회 한국공예가협회전
'Meet The Hot Glass'
유쾌한 세라믹스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한일유리조형워크숍"GlasswithCeramic-특별전
- 2012 국제조형디자인전-디지털시대의창의적실험과실용
CROSS. OVER
한국현대유리조형전
Living Ceramics : The ModernTouch of Korean Heritage, 필리핀
부자도자페어특별전- 생활의 품격 클래식리빙
유리, 생활용품전
- 2011 경계에서
발칸을 딛다
자연동화 믹스업플러스전
CeraMIX Life전
- 2010 너와 나의 와인잔전
Glass Ware II-Multi Color Stripe
- 2009 Hot & Cold with Glass Festival
- 2008 목금토 갤러리 10주년기념전
Opaque&Transparency in Glass 2
공예 트렌드 페어
- 2007 청주국제비엔날레-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서 초대작가
한국 현대공예의 오늘